

투데이 칼럼

북한판 신문고 '신소 청원법'

청와대 국민청원과 같은 제도도 북한에도 있다. 바로 '신소 청원법'이다. 신소(申訴)는 쉽게 말해 민원을 뜻한다. 권리와 이익을 침해당한 북한 주민은 신소과를 통해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

김정은 위원장에게 직통으로 올라가는 1호 신소도 있다. 여동생인 김여정 부부장이 직접 관장하고 있다. 제기된 신소에 대해서는 조사를 거쳐 그 결과를 공개하게 돼 있다. 북한에서는 영화를 통해 신소 청원의 중요성을 선전하기도 한다.

북한은 간부들의 부당한 행위로 주민의 권리가 침해받았을 경우 누구나 신소 청원을 할 수 있게 헌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청원은 지방당과 행정기관에 설치된 신소과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신소 처리는 비공개 원칙에 따라 공평정당하게 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가장 최근 북한에서 발생한 신소 청원 사례는 평양에대 비리 사건이다.

지난해 11월, 노동당 정치국 회의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인상을 찌푸리며 간부들을 질타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평양에대 신소 처리 문제를 직접 언급하고 나섰다.

당시 평양에대 비리 사건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직접 보고된 1호 신소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루 기관에서의 신소 청원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으면 최고 지도자에게 나서서 직접 처리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신소 청원법은 최고 지도자까지 나서서 북한 주민의 권리를 보호한다. 생전의 김일성 주석은 국가 건설 초기부터 신소 제도를 언급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초기에는 비리의 적발이나 처벌보다는 주민들의 불만이나 의견 수렴의 기능이 강했다. 그러나 1960년대 말, 김일성 유일 지배 체제가 본격화되면서 신소 제도의 성격에도 변화가 있었다.

북한 간부들을 견제하고 감시하기 위한 도구로 작동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중에서도 북한 최고 지도자에게 직접 제기되는 1호 신소는 간부들을 통제하는 효과적인 수단이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집권 이후 신소 청원을 쓸곧 강조해 왔다. 지난 1월 열린 노동당 전원회의에서는 신소 청원 문제를 중앙당이 직접 관장하도록 주문하기도 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2018년 말부터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간부들의 부정부패 행위를 척결해 나갔는데, 신소 청원 제도가 강력한 수단이 된 셈이다.

하지만 처리 과정이 까다롭고 복잡해 정작 부당한 일이 발생해도 신소를 제기하는 주민은 많지 않다는 게 탈북민의 주장이다.

비밀 보장이 원칙이지만 신소를 청원하려면 이름과 주소, 직장 등의 개인 정보를 모두 기재해야 하기 때문에 보복을 당할 수도 있다고 한다.

정복규

논설위원·통일교육원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예수 탄생' 놀이하는 베네수엘라 어린이들



지난 23일(현지시간) 베네수엘라 카리카스의 코타 905 마을에서 어린이들이 성탄 연극 놀이를 하고 있다.

베이징올림픽 조직위, 선수촌 일부 공개



24일 중국 베이징에 있는 2022 베이징 동계 올림픽 선수촌 기념품 가게에서 방문객들이 판매용 상품 앞을 지나가고 있다. 베이징올림픽 조직위는 24일 2022년 동계 올림픽과 패럴림픽 선수촌의 일부를 언론에 공개했다.

사설

수도권의 주거비 부담

20대와 30대들 가운데는 학교나 직장 때문에 수도권에 혼자 사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주거비가 만만치 않아서 부담이 크다. 직장인들은 대개 직장 근처로 옮겨 혼자 살고 있다.

가장 부담스러운 것은 역시 주거비다. 결어서 10분 이내로 지하철에 갈 수 있으면 대부분 기본적으로 비싸다. 주거비 부담에도 1인 가구의 비중은 계속 높아져 3가구 중 1가구꼴이 됐다.

1인 가구 중 절반 가까이는 일거리와 학교가 많이 있는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많이 살고 있다. 문제는 이 지역의 집값이 비싼 만큼 주거비 부담이 크다는 점이다.

1인 가구는 소비 지출의 20% 정도를 주거 관련 비용으로 쓰고 있다. 전체 가구 평균보다 두 배 가까이 많다.

1인 가구에겐 꼭 필요한 정책은 절반 정도가 주택 안정 대책이다.

그중 최우선 지원책으로는 전세자금 대출이다. 1인 가구 입

장에선 집을 당장 살 여력이 안 된다. 또 월세를 다달이 내기엔 경제적으로 벅차다 보니 전세를 선호한다.

사실 보증금만 구할 수 있다면 급리가 요즘같이 낮은 상황에서 전세는 자거나 월세에 비해 가장 저렴한 주거 형태다. 그러나 전세가격이 매매가 못지않게 최근 많이 올랐다.

1인 가구가 주로 사는 40㎡ 이하 주택의 평균 전세금을 보면 실상을 알 수 있다. 지난해 1월과 올해 10월을 비교해보면 30% 가까이 상승한 걸 확인할 수 있다.

1인 가구 가운데 3분의 1 정도는 60대 이상 고령층이라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연령대마다 거주 위치나 애로 사항이 다른 만큼, 이에 맞는 민생 정책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

부동산 시장이 진정되고 있다지만 여전히 집값은 비싸다. 임대료가 싸면서도 주거 환경은 안전한, 1인 가구 맞춤형 주택 공급을 늘리는 게 근본 해법이 될 것이다.

한국 드라마 열풍

한국 드라마 열풍이 거세게 일고 있다. 한국에서 제작된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오징어 게임' 열풍은 상상을 초월했다. '오징어 게임'에 이어 한국 드라마들이 전 세계 넷플릭스 인기 TV 프로그램 부문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글로벌 온라인 콘텐츠 순위 집계 사이트 '플릭스 패트롤'의 집계 결과를 보면 지난 10월 18일 기준 '오징어 게임'은 넷플릭스 TV 프로그램 부문에서 전 세계 인기 순위 1위를 유지하고 있다.

'오징어 게임'은 지난 9월 17일 공개된 이후 28일 동안 약 1억 1,100만 명이 시청했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사상 가장 많은 이들이 시청한 콘텐츠로 기록되기도 했다.

이어 지난 10월 15일 공개된 배우 한소희 주연의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마이 네임'은 이날 전 세계 넷플릭스 인기 TV 프로그램 순위 4위에 올랐다.

'마이네임'은 한국에서 넷플릭

스 TV 프로그램 인기 순위 1위를 차지했다. 넷플릭스가 서비스되는 모든 국가에서 10위권 안에 랭크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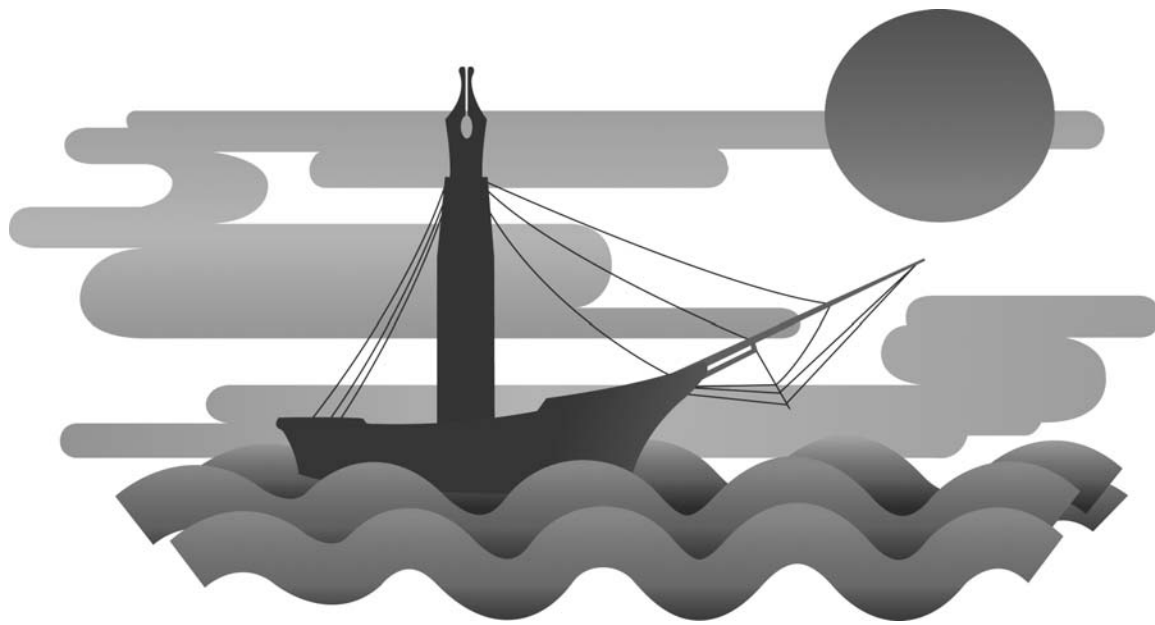
홍콩, 인도네시아, 자메이카,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타이완, 태국 등에서는 2위, 넷플릭스 구독자가 가장 많은 미국에서도 5위에 올랐다.

배우 신민아, 김신호 주연의 tvN 드라마 '갯마을 차차차' 역시 전 세계 넷플릭스 TV 프로그램 인기 순위 7위를 차지했다.

지난 10월 16일 영국 BBC는 "'오징어 게임'의 엄청난 인기는 최근 몇 년 동안 서구권에 만들어진 한국 문화 쓰나미의 가장 최근 물결"이라고 평했다.

BBC는 "한국 드라마의 인기는 갑자기 생긴 유행이 아니다"라며 "최근 전 세계 시청자들을 사로잡고 있지만 아시아에서는 이미 수십 년 동안 인기를 얻었다"고 전했다. 문화강국으로 발돋움하는 대한민국에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어려움을 속 시원하게 풀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노력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